

광산업진흥회, 비대면 글로벌 수출지원 강화

29개 광융합기업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물류비·보험료 등 수요맞춤형 마케팅 분야도 모집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역 광융합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당초 다음달 서울코엑스에서 예정된 국제광융합비즈니스 페어 행사가 차질을 빚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해외마케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2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향후 기존 전통적 대면 접촉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마케팅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광주시 지원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홍보체계구축지

원사업' 일환으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이중 외국어 홈페이지 분야는 기존 국문홈페이지를 영문홈페이지로 번역하거나,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들에겐 신규로 PC 및 모바일용으로 제작 지원한다. 외국어 카탈로그 분야는 해외바이어에게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브로슈어를, 외국어 동영상 분야는 기업 소개 및 제품을 FHD 해상

도의 2분 내외 영상을 제작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0개사 총 1억 원에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올해는 29개사에 최대 500만원(기업 당 1건)씩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공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운영 대행사와 지원기업 간 사전간담회 통해 참여기업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진흥회는 코로나19로 해외유망전시회를 참가치 못한 지역기

업의 현실적인 수요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에 필요한 해외물류비, 수출대금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수출보험료, 국내·외 전시회 영상 콘텐츠 지원 등을 총 1억6천만원 규모로 오는 13일까지 모집 중이다. 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광융합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진출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2020 LH 광주전남 지역협치 포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LH·지자체·학계·지방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2020 제1회 LH 광주전남 지역협치 포럼'을 개최했다.

'LH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은 김일태 전남대 교수와 오영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학계·광주시·의회, 전남도, 지방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6인과 내부위원 8인으로 구성됐다.

LH 오영오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국토균형발전 및 LH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기아차 '함께 극복 코로나' 기금 전달

기아자동차는 지난 1일 '함께 극복 코로나19' 기금전달식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기업들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달식은 기아차 송호성 사장과 8개 선발 기업 대표들의 온라인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함께 극복 코로나19'는 기아차의 사회공헌 활동 '굿 모빌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한 창업초기기업에 격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임후성기자

LX곡성구레지사, 지적재조사 설명회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레지사는 최근 곡성군과 함께 곡성 구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 고해상도 정사 영상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개인별 체온확인,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임후성기자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

대상 기업 3만개→9만개로...업종별 특화 대책도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 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났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은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천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 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

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업종별 특화대책도 내놔. 예컨대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선 3년간 8천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선 공동폐수시설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연소재 이불 인기... 시원한 촉감으로 여름날 시원하게 잠들 수 있는 모달, 인견, 마 등의 자연소재를 활용한 이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8층 레노마 침구매장에서 고객들이 여름용 모달 이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여수 화태-백야 도로공사 속도 낸다

입찰공고 이어 현장설명회 개최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1·2공구(이하 화태-백야 사업)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에서 '화태-백야 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설계변역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화태-백야 사업'은 총 4개의 해상교량이 포함된 공사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되며, 지난 5월29일 입찰공고 됐다.

현장설명회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오는 10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1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화태-백야 사업은 지난 4월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용 대상으로 5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 중 지역업체 비율이 평균 38.8%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진 익산국도청장은 "화태-백야 사업은 여수 월호도·개도·제도 3개의 섬을 육지와 연결해 도서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농관원 호남권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부정유통 사범 효과적 대응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대형화·지능화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포렌식 도구 등 최신 장비를 갖추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단속·수사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체계 전국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3대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호남권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남·



북, 제주를 관할한다.

또 참관실을 설치해 제품 절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농식품 부정유통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구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호남권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을 계기로 농식품 부정 유통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취업을 위한 준비~지금 도전하세요!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5월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고용복지센터 방문필요 x,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5월개강	IoT 개발자(임베디드 S/W)	고용복지센터 방문필요 x,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급
5월개강	제품디자인(3D 프린팅)	고용복지센터 방문필요 매월 훈련수당 지급
6월개강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실기시험없이 자체 평가 후 자격증 발급~ 자격증 도전 쉽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6월개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필기,실기시험없이 자체 평가 후 자격증 발급~ 자격증 도전 쉽고 빠르게~ 산업기사 학력제한 없이 준비가능!!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